

제316호 (2011. 6. 27)

■ 경제 동향

- 1~4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 부문 부진으로 1.7% 감소

■ 정책 · 경영

-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4.0% 증가 전망
-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강보합 · 전세가격 5% 상승

■ 정보 마당

- 미국 양적 완화 통화정책, 6월 말 종료

■ 업계 · 연구원 소식

■ 경제 일지 / 제도 · 용어 해설

■ 건설 통계

■ 건설 논단

1~4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 부문 부진으로 1.7% 감소

- 3~4월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1~2월 부진으로 5년래 최저치 -

■ 4월 국내건설 수주, 민간 부문의 호조로 전년 동기비 5.6% 증가

- 올 4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은 부진(-20.3%)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호조(+18.8%)를 보여 전년 동월비 5.6% 증가한 8조 6,490억원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
- 4월 공공 수주는 토목과 주택 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 감소한 2조 2,092억원을 기록, 4월 실적으로는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비 23.1%가 감소한 1조 5,008억원을 기록,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이어감.
 - 공공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경기 및 경북 지역의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비 41.5% 증가함.
 - 반면, 주거용 건축수주는 LH공사의 재정 문제로 발주가 지연되어 전년 동월비 62.4% 감소함에 따라 4월 실적으로는 8년래 최저치인 1,631억원에 그침.
- 4월 민간 수주는 토목과 건축 수주가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18.8% 증가한 6조 4,398억원을 기록,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민간 토목수주는 부천-소사 간 복선전철 등 대형 BTL 사업과 골프장 건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5.6% 증가한 1조 972억원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민간 주택수주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재개발 물량의 증가와 함께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16.7% 증가한 3조 517억원을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
 - 민간 비주택수주는 공장 및 창고 수주가 위축되었지만, 업무시설 및 상가 시설의 수주가 증가해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주택 수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증가함.

<2011년 4월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 구 분 | 총계 | 공공 | | | | | 민간 | | | | |
|----------|---------|---------|---------|-------|-------|-------|---------|---------|---------|---------|---------|
| | | 토목 | 건축 | 주택 | 비주택 | 토목 | 건축 | 주택 | 비주택 | | |
| 2010. 4월 | 8,189.1 | 2,770.6 | 1,950.9 | 819.7 | 434.3 | 385.4 | 5,418.5 | 1,038.8 | 4,379.7 | 2,615.0 | 1,764.7 |
| 2011. 4월 | 8,649.0 | 2,209.2 | 1,500.8 | 708.4 | 163.1 | 545.3 | 6,439.8 | 1,097.2 | 5,342.5 | 3,051.7 | 2,290.8 |
| 증감률 | 5.6 | -20.3 | -23.1 | -13.6 | -62.4 | 41.5 | 18.8 | 5.6 | 22.0 | 16.7 | 29.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1~4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비 1.7% 감소

- 2001년 1~4월 국내 건설수주는 비록 3월과 4월에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 1월과 2월의 침체로 전년 동기비 1.7% 감소한 28조 5,106을 기록, 같은 기간 대비 5년래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1~4월 공공 부문의 수주 실적은 5년래 최저치인 8조 1,843억원을 기록함. 공종별로 공공 토목수주와 주택수주가 크게 위축되었음.
 - 1~4월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기비 44.5% 감소한 5조 2,920억원으로, 누계 실적으로는 지난 2008년 5조 1,586억원 이후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함.
 - 1~4월 공공 주택수주는 LH공사의 재정난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전년 동기비 44.8% 급감, 금액상으로 8년래 최저치인 6,818억원을 기록함.
 - 한편, 공공 비주택수주는 2조 446억원을 기록, 이는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양호하였음.
- 1~4월 민간 수주는 2~4월 동안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해 전년 동기비 26.4% 증가한 20조 4,922억원을 기록, 3년래 최대치를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전년 동기비 88.9% 급등, 자료가 수집된 1994년 이후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인 5조 1,907억원을 기록. 대형 플랜트의 수주와 부산 복선전철, 부천-소사 간 복선전철 등 철도 관련 민자 사업(BTL, Build Transfer Operate) 수주가 활발히 이뤄졌음.
 -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비 13.6% 증가한 8조 1,009억원을 기록함. 작년보다는 양호하지 않지만, 2009년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였음.
 - 비주택수주는 전년 동기비 13.7% 증가, 4년래 최대치인 7조 2,005억원을 기록함.

<최근 5년 간 1~4월 국내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 구 분 | 총계 | 공공 | | | 민간 | | | | |
|-----------|--------------------|--------------------|--------------------|------------------|------------------|--------------------|-------------------|-------------------|-------------------|
| | | 토목 | 주택 | 비주택 | 토목 | 주택 | 비주택 | | |
| 2007. 1~4 | 33,710.4 | 9,449.3 | 6,693.8 | 1,435.8 | 1,319.6 | 24,261.1 | 3,204.4 | 12,684.8 | 8,371.9 |
| 2008. 1~4 | 32,987.2 | 10,677.1 | 5,158.6 | 3,558.8 | 1,959.6 | 22,310.1 | 2,595.0 | 12,538.1 | 7,177.1 |
| 2009. 1~4 | 29,679.7 | 18,102.4 | 13,924.3 | 1,622.9 | 2,555.2 | 11,577.3 | 2,498.6 | 5,073.4 | 4,005.4 |
| 2010. 1~4 | 28,992.9 | 12,781.4 | 9,537.0 | 1,236.1 | 2,008.3 | 16,211.5 | 2,747.8 | 7,129.7 | 6,334.0 |
| 2011. 1~4 | 28,510.6 (-1.7) | 8,018.4 (-37.3) | 5,292.0 (-44.5) | 681.8 (-44.8) | 2,044.6 (1.8) | 20,492.2 (26.4) | 5,190.7 (88.9) | 8,100.9 (13.6) | 7,200.5 (13.7) |

주 :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4.0% 증가 전망

- 작년도 기저 효과로 4.0% 증가, 수주액은 54.6조원으로 부진 예상 -

■ 2011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7조원 전망

- 2011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2.7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 4년 연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의 발주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하고, 작년도 기저 효과도 작용하여 전년 동기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액은 54.6조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2011년 건설수주 전망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2010년 | | | 2011년(e) | | |
|-----------------------|-------|-------|-------|-------|-------|-------|-------|-------|----------|-------|-------|
| | 연간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 연도 가격) | | | | | | | | | | | |
| 공공 | 37.1 | 41.8 | 31.8 | 26.7 | 58.5 | 20.0 | 18.2 | 38.2 | 13.1 | 18.9 | 32.0 |
| 민간 | 90.8 | 78.2 | 19.0 | 41.2 | 60.2 | 30.7 | 34.3 | 65.0 | 34.9 | 35.8 | 70.7 |
| 토목 | 36.2 | 41.3 | 27.8 | 26.4 | 54.1 | 19.5 | 21.9 | 41.4 | 15.7 | 19.2 | 34.9 |
| 건축 | 91.7 | 78.8 | 23.0 | 41.6 | 64.6 | 31.2 | 30.7 | 61.8 | 32.3 | 35.5 | 67.8 |
| 주거 | 58.1 | 44.7 | 12.0 | 27.1 | 39.1 | 15.6 | 16.0 | 31.6 | 16.0 | 17.3 | 33.2 |
| 비주거 | 33.6 | 34.2 | 11.0 | 14.5 | 25.5 | 15.6 | 14.7 | 30.2 | 16.4 | 18.2 | 34.6 |
| 계 | 127.9 | 120.1 | 50.8 | 67.9 | 118.7 | 50.7 | 52.6 | 103.2 | 48.0 | 54.6 | 102.7 |
| 증감률 (% , 전년 동기비) | | | | | | | | | | | |
| 공공 | 25.6 | 12.8 | 82.2 | 9.4 | 39.8 | -37.0 | -31.8 | -34.6 | -34.5 | 3.7 | -16.3 |
| 민간 | 16.7 | -13.9 | -49.6 | 1.7 | -23.0 | 61.5 | -16.7 | 7.9 | 13.9 | 4.1 | 8.7 |
| 토목 | 27.5 | 14.0 | 85.9 | 0.2 | 31.2 | -29.7 | -17.1 | -23.6 | -19.6 | -12.4 | -15.8 |
| 건축 | 16.2 | -14.1 | -42.7 | 7.6 | -18.1 | 35.4 | -26.2 | -4.2 | 3.8 | 15.6 | 9.6 |
| 주거 | 9.1 | -23.2 | -49.1 | 28.5 | -12.5 | 29.6 | -40.8 | -19.1 | 2.3 | 7.7 | 5.1 |
| 비주거 | 30.8 | 1.8 | -33.7 | -17.5 | -25.4 | 41.7 | 1.1 | 18.6 | 5.2 | 24.3 | 14.5 |
| 계 | 19.2 | -6.1 | -7.9 | 4.6 | -1.1 | -0.2 | -22.7 | -13.0 | -5.2 | 4.0 | -0.5 |

주 : 2011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수주 16.3% 감소(하반기에는 3.7% 증가), 민간 수주 8.7% 증가 전망

-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가 전년 대비 16.3% 감소한 32.0조원을 기록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공공 부문의 발주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양호할 전망이고, 작년도 기저 효과도 작용하여 전년 동기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 공공 토목수주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신규 토목공사의 발주가 급감한데다, 공기업도 철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규 토목공사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전망
- 반면, 공공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 공사 발주 증가, 공공주택 발주 소폭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로 증가하며 양호할 전망
- 200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0년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민간 수주는 2011년에도 전년 대비 8.7%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가겠음. 그러나, 수주액 자체는 70.7조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하반기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비 4.1%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가겠음.

■ 토목 및 주택 수주 부진, 비주거 건축 수주 양호 전망

-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 수주는 경기 회복 영향으로 민간 토목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토목수주가 급감하여 전년비 15.8% 감소한 34.9조원을 기록해 부진할 전망이다.
 - 하반기 토목 수주는 상반기에 비하여 공공 부문의 발주 증가 및 작년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12.4% 감소하며, 상반기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음.
- 주택 수주는 공공 주택수주가 전년비 소폭 증가하고 분양을 연기했던 민간 건설업체들도 분양 물량을 소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비 5.1% 증가에 그친 33.2조원을 기록하며, 수주액이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하반기 주택 수주는 상반기에 비해 공공 주택공사 발주가 다소 증가하고, 민간 주택수주 회복세도 완만하게 이어져 전년 동기비 7.7%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 공사 발주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비주거용 건축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4.5% 증가한 34.6조원을 기록해 양호할 전망이다.
 - 하반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상반기에 비해 공공 부문의 발주가 증가하고, 민간 부문의 회복세도 이어져 전년 동기비 24.3% 증가하며 양호할 전망이다.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강보합 · 전세가격 5% 상승

- 지방 매매가 4% 상승, 전세가는 상반기보다는 상승세 둔화될 듯 -

■ 하반기 주택 · 부동산 전망의 주요 변수

- **구조적 변화** : 최근 상황은 매매시장의 내부적 변화,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관계 변화 등 다각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매매가격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상승폭은 줄어드는 한편, 상승 기간 역시 짧아지고 있음.
 - 과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선후행성의 차는 존재하지만, 시차를 두고 동반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수도권 시장은 이러한 패턴이 사라짐.
 - 전세는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는 증가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임.
 - 전국의 전역적 움직임은 약화되고 수도권과 지방 주택 경기 흐름의 차별화 현상
- **거시경제** : 높은 물가 상승세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연
 - 작년부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는 양상
 - 연내 1~2차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인상 전망
- **수요** : 소득이 증가 중이나 증가폭은 미미하며, 증가세가 가파른 고소득층도 금융 건전성의 취약 등으로 수요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자가 점유율이 낮은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세는 미미
 - 고소득층 대상의 고가 주택은 과다 차입의 경향이 강해 금융 건전성 취약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나, 수도권은 매매 전환시 추가 비용이 많아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
- **공급** :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급감하여, 지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
 - 2011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0년 대비 33.3% 감소하여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형 및 민간 공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 감소
 - 지방 시장은 공급 감소 기간이 길고 감소폭도 커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예상
- **금융** : PF 부실과 대체 금융 미정착에 따른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은 중장기적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됨.

- 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2010년 12월 말)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12.2조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0.3조원 증가하였고 연체율도 25.1%에 이릅니다.
- PF 대안으로 자기관리리츠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 금융 시스템으로의 정착은 어려움.
- **정책**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확대된 가계신용을 고려할 때 금융 건전성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매매가격 수도권 강보합 · 지방 4% 상승, 전세가격 전국 5% 상승**

- 매매가격은 상반기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방은 4% 상승세이나 수도권은 강보합세 예상
 - 지방은 공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하반기 공급 물량 증가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도권 시장은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도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월세 전환 등의 실질적 임대료 상승이 동반되어 5% 수준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시장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둔화 전망
 - 그러나,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도입 직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상반기를 넘어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은 멸실 증가, 매매가격 정체로 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 요인들이 존재하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11년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2011년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① | |
| 전국 | 매매 | 3.1 | 1.5 | 0.7 | 0.3 | 0.0 | 1.0 | 1.9 | 3~4 | 지방 4 |
| | 전세 | 1.7 | 3.4 | 1.6 | 1.4 | 1.3 | 2.6 | 7.1 | 6~7 | 수도권 강보합 |
| | | | | | | | | | | 5 |

주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미국, 양적 완화 통화정책 6월 말 종료

- 단계적 시행으로 통화량 증대 효과, 향후 통화정책에 전 세계 관심 집중 -

-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이하 Fed)의 제2차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이하 QE)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Fed가 어떠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양적완화 통화정책이란

- 미국의 QE란 정책 금리가 '0' 수준에 근접한 경우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Fed가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국채 등 시장성 부채를 직접 매입하여 통화를 늘리는 정책임.
 - 전통적인 통화정책인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은 정해진 목표 금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인 Fed가 채권시장에서 연방재무부 또는 연방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채권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통화정책임.
 - 공개시장조작 정책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지만, 공개시장조작은 정해진 목표 금리로 인하하기 위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고, QE는 목표 자체가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
 - 또한, 공개시장조작에서 Fed가 매입하는 채권은 연방재무부 채권과 연방기관 채권으로 국한되나 QE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보다 다양함.

■ 양적 완화 통화정책의 호시

- QE는 2001년 3월 19일에 일본은행이 '量的金融緩和'라는 이름으로 국채를 매입한 것이 시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일본은행은 1990년 초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 금리인 콜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했으나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직면
- 이처럼 금리를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이 기능을 상실하자 2001년 3월 금융기관이 필요

*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간에 유통되는 자금이 적용되는 금리.

로 하는 이상의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디플레이션 탈출을 도모함.

- 은행 간 신용위험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콜시장이 마비되자 일본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시중은행(도시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줌으로써 자금을 지원

■ 전개 과정

- 제1차 QE는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기간인 2008년 11월에서 2010년 3월까지 시행된 미 연방준비은행의 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공 정책임.
 - 2008년 11월 Fed는 6,000억 달러 상당의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를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3월에는 Fed가 보유한 채권이 1조 7,500억 달러, 2010년 6월에는 2조 1,000억 달러로 증가했음.
 - 이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추가적인 채권 매입은 일시 중단되었고, Fed가 보유한 일부 채권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채권 보유액은 감소되어 2012년 말에는 1조 7,000억 달러로 예상됨.
- Fed는 2010년 11월 3일 경제가 건실하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6,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2011년 6월 말까지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제2차 QE라고 함.
- 이 기간 동안 통화량(M1)을 구성하는 현금통화(Currency)는 9,157억 달러에서 435억 달러 증가한 9,59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요구불예금(Checkable Deposit)은 5,081억 달러에서 641억 달러 증가한 5,722억 달러로 증가했음. 미국에서 협의의 통화량 M1은 <현금통화 + 여행자수표 + 요구불예금>임.

<미국의 2차 양적 통화정책 기간 동안 통화량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 현금통화(Currency) |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s)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
|--------------|----------------|--------------------------|-----------------------|
| 2010. 12. 31 | 915.7 | 4.7 | 508.1 |
| 2011. 5. 23 | 959.9 | 4.6 | 572.2 |
| 증감액 | 43.5 | -1 | 64.1 |

자료 :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H. 6(2011. 6. 2),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www.federalreserve.gov),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 주택담보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자산담보부채권(Asset Backed Securities).

■ 대한건설협회, 「2011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 대한건설협회는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을 제정
- 일시 및 장소 : 2011.6.22(수), 11: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행사 내용 : 건설업 윤리경영 우수업체 선정과 시상

<수상 내역>

| | |
|-------|-----------------------|
| 대 상 | GS건설(대기업), 원광건설(중견기업) |
| 장 려 상 | 도원이엔씨 |

- 의의 : 대한건설협회는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자가진단 모델」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건설업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윤리경영 사례, 회원사 윤리경영 홍보관 등을 신설하여 업계의 윤리경영 활동을 홍보·지원할 계획임.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를 밑거름으로 하여 미래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한편, 서울시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업계 원로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축제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11.6.23(목), 18:30, 르네상스호텔
- 행사 내용 : 제22대 서울시회 회장 취임식 및 서울시회 50년사 봉정식과 축하만찬 등

■ 대한건설협회, 맞춤형 「경영 자문단 서비스」 개시

- 대한건설협회는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 퇴직 임원 등을 중심으로 경영 자문단을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경영 자문단 서비스」 개시
 - 자문·상담 분야 : 하도급·클레임, 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 상담 일정 : 매주 화, 목요일(14:00~17:00) 직접 내방 또는 전화 상담
 - 이용 방법 :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내용과 접수순으로 상담 일시를 별도 통보
 - 문의 :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또는 협회 경영지원센터(Tel : 02-3485-8302)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 일자 | 기관명 | 주요 내용 |
|-------|---------|---|
| 6. 21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주택 종합계획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주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 |
| | 한국건설신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선방안’에 관한 기획 좌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이 사회자로 참여 |
| 6. 22 | 정책금융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 발굴 및 평가 연구’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여신 기능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내부 연구과제의 진행 결과 설명 및 관련 의견 수렴 |
| 6. 23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건설과 주최 ‘해외건설 진흥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 - 2011년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의 연구제안서 평가 및 자문 |
| | 금융통화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례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201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 6. 24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안전과 주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3차 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대한 자문 |
| | 지식경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엔지니어링/플랜트 기업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선진국 대비 취약한 엔지니어링 핵심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6(수)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건설업계 파급 효과 및 문제점
(발제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 제2주제 : 저가 낙찰이 산업재해 및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 제3주제 : 선진국의 입찰제도의 운용 현황과 국내 제도 개선방향
(발제자 :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
- 문의 : 기획팀(Tel. 02-3441-0815),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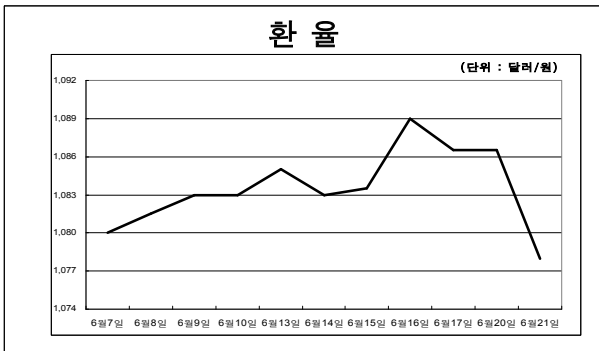
| 일자 | 주요 내용 |
|-------|--|
| 6.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2011년 5월 고용 동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5.5만 명이 증가하여 2010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매월 30만 명 이상 증가,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60.1%)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실업률(3.2%)은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 ▪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4분기 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년 말 대비 3.2% 증가한 1경 630조 7,000억을 기록, 개인 부문의 자금 조달 규모는 9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 7,000억원 축소 ▪ 지식경제부, 「원자재 관리 시스템 개편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의 상시경보시스템(WACS) 구축, 비축 물자 할인 방출 제도화, 정책금융 공사의 경영안정용 긴급 운전자금 지원 등 원자재 금융 확대 ▪ 지식경제부, 「FTA 무역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의 발효에 대응한 FTA 무역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 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온라인 기반 원산지 관리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FTA 무역 활성화 방안 발표 |
| 6.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택지 조성 원가 인하 유도,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 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 ▪ 지식경제부,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 보고(제90차 국민경제 대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우라늄, 동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 12% 확보 목표 |
| 6.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한·중 응용 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양해 각서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 간 채널로서 기존의 기초 기술 중-심의 협력에서 산업 응용 기술 및 상용화 분야로 기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
| 6.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 지역·서민 경제를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 6.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2011년 5월중 어음 부도율 동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음 부도율은 0.02%로 전월(0.06%)보다 하락, 부도 업체수는 123개로 전월(134개)에 비해 감소,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의 비율은 60.3배로 전월(55.3배)에 비해 상승 |
| 6.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동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7월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금년 3~5월 2개월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취득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되는 모습임. ▪ 금융감독원, 「영업 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본원 및 5개 지원·출장소에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 ▪ 한국은행, 「2011년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추진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 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동전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5월 한달 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2억 4,800만 개(348억원)의 동전을 교환 ▪ 금융감독원, 「2011년 제2차 외환·국제금융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채무 조정의 가능성 등 최근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원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 |

<최적가치 낙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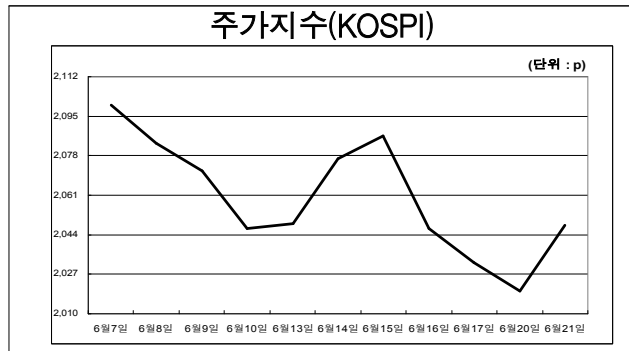
- **개요** : 업체의 과거 시공 우수성,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 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 **일정** : 행정안전부에서 1년간 시범 운영(2011.7~2012.6)을 거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한 후 최종 기준 확정(2012.7)
- **대상 공사** :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
- **제도 운영**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284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가능, 284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창의력 중시형 제외)
- **적용 유형** : 공사 특성에 맞게 선택·적용 하도록 3개 유형 마련
 - 경험 중시형 : 건설공사 중 경험이 중요한 공사(공사 예시 : 조정, 상수도 공사 등)
 - 창의력 중시형 : 고난이도, 시공능력이 중요한 공사(공사 예시 : 건축, 교량, 터널공사 등)
 - 일반형 : 단순 건설공사 등 일반적 수준의 공사(공사 예시 : 도로공사 등)
- **평가 절차**

| 경험 중시형 | 창의력 중시형 | 일반형 |
|--|--|---|
| 적격성 심사 | 시공능력 평가 | 가격 입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s or Fail 방식 · 1단계 :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 · 2단계 : 이행능력심사 (90점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평가(80점) 대안제시(50), 예산절감방안(20), 시공관리계획(10) · 정량적 평가(20점) 기술능력(10), 경영상태(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이 낮은 업체순으로 10개 선정 |
| ↓ | ↓ | ↓ |
| 가격 입찰 | 가격 입찰 | 적격성심사 |
| ↓ | ↓ | ↓ |
| 종합 평가 | $\frac{\text{최저가 입찰금액}}{\text{입찰금액}} \times 100$ | 적격성심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정량적 평가(60점), 가격(30), 시공품질(20), 하도급(10) · 2단계 : 정성적 평가(40점)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s or Fail 방식 · 정량적 평가(50점) 경영상태(10), 시공실적(10), 시공품질(10), 기술능력(20) 에서 45점 이상인 업체만 통과 |
| ↓ | ↓ | ↓ |
| 종합 평가 | 종합 평가 | 종합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정량적 평가(60점), 가격(30), 시공품질(20), 하도급(10) · 2단계 : 정성적 평가(40점)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평가(50%) + 정성적 평가(50%) 대안제시(30), 시공관리계획(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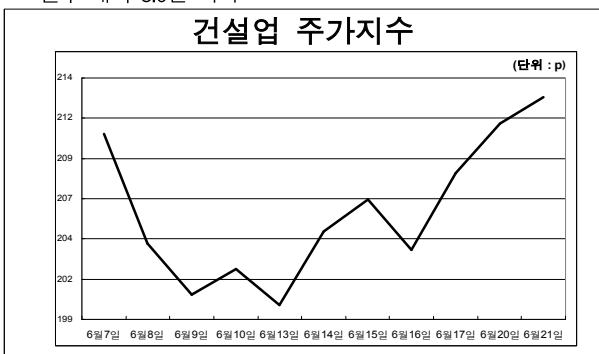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1. 6. 7~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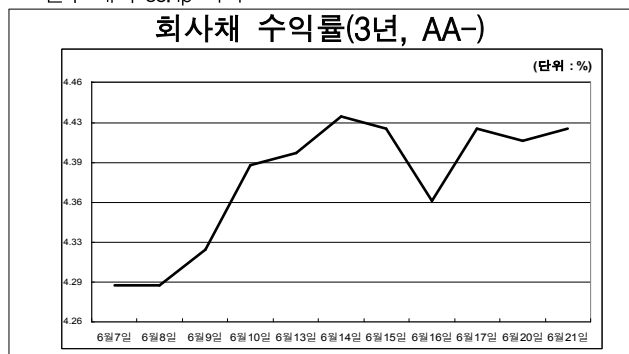
- 전주 대비 5.0원 하락



- 전주 대비 38.4p 하락



- 전주 대비 8.4p 상승



- 전주 대비 0.01%p 하락

■ 발주 부문별 수주액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 2010년 | | | | | 2011년 | | | | |
|-------|-------|-------|-------|-------|-------|-------|-----|-----|-----|-------|
| | 연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증감률 |
| 총수주금액 | 103.2 | 20.8 | 30.0 | 22.1 | 30.4 | 5.8 | 5.1 | 9.0 | 8.6 | 5.6 |
| 민간 | 65.0 | 10.8 | 19.9 | 13.6 | 20.8 | 4.1 | 3.2 | 6.8 | 6.4 | 18.8 |
| 주거 | 26.9 | 4.5 | 8.6 | 6.5 | 7.2 | 1.6 | 1.2 | 2.2 | 3.1 | 16.7 |
| 공공 | 38.2 | 10.0 | 10.0 | 8.5 | 9.7 | 1.7 | 1.9 | 2.2 | 5.8 | -20.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 2010년 | | | | | 2011년 | | | | |
|------|-------|-------|-------|-------|-------|-------|------|------|------|-------|
| | 연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증감률 |
| 수주금액 | 715.8 | 280.7 | 83.7 | 163.4 | 187.5 | 20.1 | 56.9 | 52.0 | 39.4 | -3.0 |
| 수주건수 | 593 | 111 | 161 | 158 | 164 | 48 | 25 | 51 | 41 | -31.7 |
| 진출국가 | 91 | 45 | 53 | 57 | 61 | 39 | 25 | 27 | 28 | -6.7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건설자재지수

(2005년 : 100,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 2010년 | | | | | 2011년 | | | | |
|-----|-------|-------|-------|-------|-------|-------|-------|-------|-------|------|
| | 연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증감률 |
| 원재료 | 151.2 | 151.4 | 151.1 | 151.1 | 151.3 | 151.3 | 151.1 | 151.1 | 151.1 | - |
| 중간재 | 136.8 | 131.9 | 137.1 | 138.4 | 139.6 | 141.5 | 143.8 | 146.5 | 147.1 | -2.6 |

자료 : 통계청.

동반성장, 정부도 참여해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이 뒷걸음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건설업자 상호협력평가’를 보면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 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서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은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노력이 퇴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장 규제자이자 최대 수요자

올해는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와 출혈경쟁에 원가 압박까지 가중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다른 건설사나 협력사를 쟁길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건설업체 중 약 30%가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니 업계 탓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정부는 경쟁 규칙을 정하는 규제자인 동시에 건설산업의 경우 가장 큰 수요자다. 정부는 도로·항만·주택 등 공공 목적의 건설상품을 직접 발주하고 건설업체는 입찰을 통해 대가를 받고 이를 공급한다. 공공수요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니 정부는 건설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다. 타 산업과 달리 정부가 동반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정부는 예산절감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 투찰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물량내역 수정입찰제가 새로 도입돼 물량 삭감까지 조장하고 있다.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이 실적공사비라는 제도를 통해 향후 공사 가격에 반영되다보니 입찰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적자 시공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와 무리한 공기 단축, 산재 증가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언감생심 동반성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완공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 예산절감 목표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있어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 and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 발주자가 프로젝트 참가자의 일원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건설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비 등 제값 주는 원칙 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 말이 있다.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상품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서로를 배려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다. 건설산업의 가장 큰 수요자인 정부가 가격을 후려치기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 참여자에게 상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코 떳떳할 수 없다. 건설 생산은 발주자와 원도급자·하도급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가 상호 협력해야 효율이 오른다. 동반성장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경제, 2011. 6. 8>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